

이슈보고서

산업경제팀

VOL.2018-이슈-11(2018.11)

최근 석유화학산업 3대 이슈



CONTENTS

1. 최근 석유화학산업 3대 이슈

이슈 ①: 미국 ECC 가동개시 본격화에 따른 공급경쟁 심화

이슈 ②: 유가상승에 따른 NCC 원가 경쟁력 악화

이슈 ③: 미·중 무역분쟁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2.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

작성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xim.go.kr



<요 약>

국내 NCC 업체들은 2018년 상반기, 비교적 양호한 실적 기록

- 2018년 상반기 국내 NCC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13.9%로 전년 15.7%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대비 여전히 양호한 수준 기록
- 유가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요증가에 따른 시황 호조, 역내 공급 부족 등으로 상반기 실적 호조
- 2018년 1~9월 석유화학부문 수출액이 3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2.4% 상승
- 국내 석유화학 부문 수출도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에 따른 신규(Virgin) 합성수지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액 증가

최근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3 가지 이슈들로 석유화학업체들의 실적악화 우려

- ①미국발 ECC 증설확대 및 국내 공급과잉 심화 ②유가상승에 따른 원가경쟁력 약화 ③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등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업체들의 실적악화 불가피

< 최근 석유화학산업 3대 이슈 >

이슈 ①: 미국 ECC 가동개시 본격화에 따른 공급경쟁 심화	이슈 ②: 유가상승에 따른 NCC 원가경쟁력 약화	이슈 ③: 미·중 무역분쟁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하반기~2019년까지 미국 ECC 신증설 설비가동 본격화 • 미국 ECC 증설은 PE(폴리에틸렌), MEG(모노에틸글리콜) 등 에틸렌 계열 제품 생산으로 이어져 관련제품 공급과잉이 더욱 확대되고, 미국발 공급과잉 물량의 아시아 시장 유입으로 공급경쟁 심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상승에 따른 납사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에틸렌 가격 하락으로 9월 이후 에틸렌 마진 급감 • 10월 이후 유가 하향 안정세와 중국 재고비축 수요 및 한국 NCC 정기보수 등에 따른 에틸렌 가격 반등이 기대되어 점차적인 마진회복이 예상되나 미국발 공급확대로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 석유화학제품도 다수 포함 •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분쟁 장기화 시 미국산 제품의 중국 外 아시아 유입,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감소 등으로 시황 악화 우려

향후 에틸렌 계열 중심으로 미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이 우려되는바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필요

- 중장기적으로 원료 다변화 및 고부가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전환할 필요



1. 최근 석유화학산업 3대 이슈

이슈 ①: 미국 ECC 가동개시 본격화에 따른 공급경쟁 심화

미국 ECC 신증설 설비가동 본격화로 폴리에틸렌(PE) 등 에틸렌 계열 제품 공급 과잉이 더욱 확대될 전망

- 2017년 하반기~2019년까지 ECC 완공이 집중되고, 2022~2024년에도 대규모 ECC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미국발 에틸렌 계열 제품의 공급과잉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표 1] 미국 ECC 증설 프로젝트

업체명	지역	설비용량(천톤)	유도체 증설	가동시기	비고
DowDuPont	Freeport, TX	1,500	Elite PE (400ktpa) LDPE (350ktpa) EPDM (200ktpa) Elastomers (320ktpa)	3Q17	신규
LyondellBasell	Corpus Christi, TX	363	Existing	2Q17	증설
OxyChem/Mexichem	Ingleside, TX	544	Feed existing VCM	1Q17	신규
Westlake	Calvert City, KY	32	Existing	2Q17	증설
2017 합계		2,439			
Sasol	Lake Charles, LA	1,500	LDPE (450ktpa) LLDPE (450ktpa) EO/EG (300ktpa) Ethoxylates, Detergent Alcohols (300ktpa)	4Q18	신규
Formosa Plastics	Point Comfort, TX	1,500	HDPE (400ktpa) LDPE (400ktpa) EG (800ktpa)	4Q18	신규
ExxonMobil	Baytown, TX	1,500	mLLDPE/LLDPE (650ktpa x 2)	2Q18	신규
Chevron Phillips	Cedar Bayou, TX	1,500	Bimodal HDPE (500ktpa) mLLDPE (500ktpa)	1Q18	신규
Shintech	Plaquemine, LA	500	VCM (300ktpa) PVC (300ktpa) Caustic Soda (200ktpa)	2018	신규
Indorama	Lake Charles, LA	440	Existing	4Q18	재가동
2018 합계		6,940			
Westlake/Lotte	St Charles, LA	1,000	MEG (700ktpa) feed exsting PVC for Westlake	1Q19	신규
DowDuPont	Freeport, TX	500	Existing	End 2019	증설
DowDupont	Orange, TX	91	Exsting	Early 2019	증설
2019 합계		1,591			
SABIC/ExxonMobil	Corpus Christi, TX	1,800	PE (unspecified x2) MEG (unspecified)	2H22	Second Wave, FID 2018
Shell	Monaca, PA	1,500	HDPE/LLDPE (550ktpa x2) HDPE (500ktpa)	Early 2020s	Second Wave, Under Construction
Total/Borealis/Nova	Port Arthur, TX	1,000	Borstar PE (625ktpa) Existing PE (400ktpa)	End 2020	Second Wave, Cracker Under Construction, PE Pending FID
PTT Global	Belmont County, OH	1,000	HDPE (700ktpa) MEG (500ktpa) EO (100ktpa)	2021	Second Wave, FID 1Q18
Formosa Plastics	St James Parish, LA	1,200	LDPE (400ktpa) HDPE (400ktpa) EG (800ktpa)	2022	Second Wave, Evaluating, Permitting
INEOS	Chocolate Bayou, TX	270	Existing	2020	Expansion, FID 2H18
Lyondell Basell	Channelview, TX	250	Existing	2020s	Expansion, Evaluating
2020s 합계		7,020			

자료: 하이투자증권



- 미국 ECC 증설은 PE 등 에틸렌 유도품 생산으로 이어져, 미국 PE 잉여분이 주로 유럽, 중남미 지역 수출이 추진되고, 아시아 지역으로도 수출물량이 확대될 전망
- 북미 지역 공급 과잉 폭 확대는 중동산 물량과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 PE 공급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
- 2016-2022년간 북미 지역의 PE 수출 증가분이 약 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아 최대 PE 수입국 중국의 수입 증가분은 약 42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의 對이란 제재 부활로 중동 증설물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란 증설이 지연될 가능성, 중국 CTO(Coal-to-olefin) 설비¹⁾ 증설 지연 및 가동률 정체 등이 향후 공급과잉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표2] 글로벌 PE 수급 밸런스*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HDPE		LDPE		LLDPE		PE 계	
	2016	2022	2016	2022	2016	2022	2016	2022
북미	1,567	2,862	402	1,301	1,413	3,953	3,382	8,116
중남미	-658	-1,020	-396	-454	-551	-899	-1,605	-2,373
유럽	-1,648	-2,158	-13	-429	-1,745	-2,466	-3,406	-5,053
러시아·동유럽	-9	860	76	4	-393	-61	-326	803
아프리카	-1,214	-1,474	-424	-508	-721	-967	-2,359	-2,949
중동	7,175	7,832	2,465	2,916	4,340	6,135	13,980	16,883
동북아	-3,859	-5,026	-1,690	-2,307	-1,971	-4,828	-7,520	-12,161
아시아·태평양	-897	-1,872	-323	-524	-156	-866	-1,376	-3,262
합계	457	4	97	-1	216	1	770	4

* 양수는 과잉분, 음수는 부족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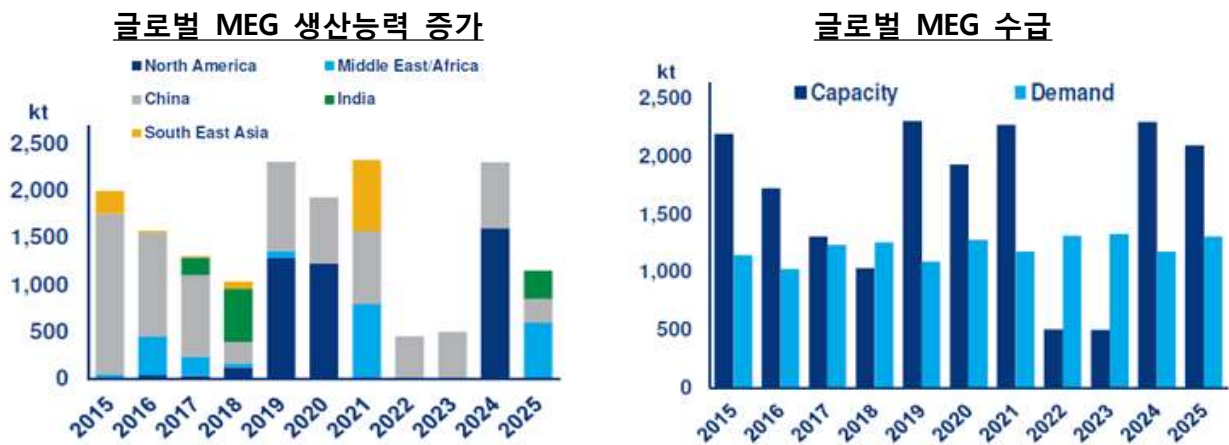
자료: CMRI(2018.10월)

1) CTO(Coal-to-olefin) 설비: 석탄을 원료로 하여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설비



- 북미 지역 MEG(Mono Ethylene Glycol) 설비 증설도 2019~2020년에 집중적으로 증가, 2019년 말부터 글로벌 MEG도 공급과잉으로 시황이 부진해질 전망
- 향후 MEG 수요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00만~120만 톤 정도씩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북미, 중국 등 아시아 생산능력 확대로 2019년 이후 공급과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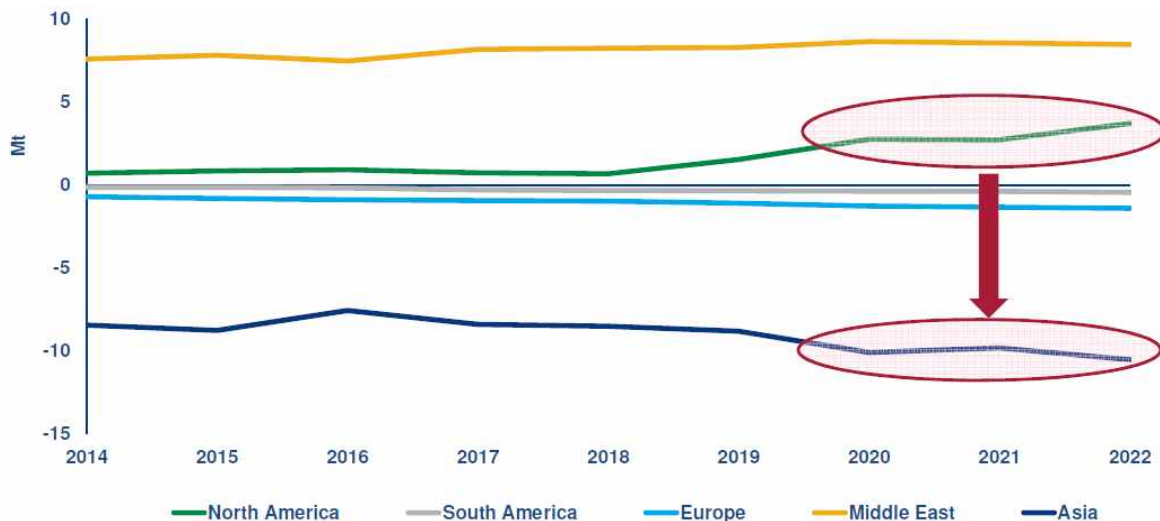
[그림 1] MEG 수급 추이 및 전망



자료: PCI Wood Mackenzie(2017.11월)

- 북미산 MEG는 높은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잉여분 대부분이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되어 아시아 시장의 공급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그림 2] 지역별 MEG 잉여/부족분



자료: PCI Wood Mackenzie(2017.11월)



이슈 ②: 유가상승에 따른 NCC 원가경쟁력 약화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산유국 공급차질로 2018년 유가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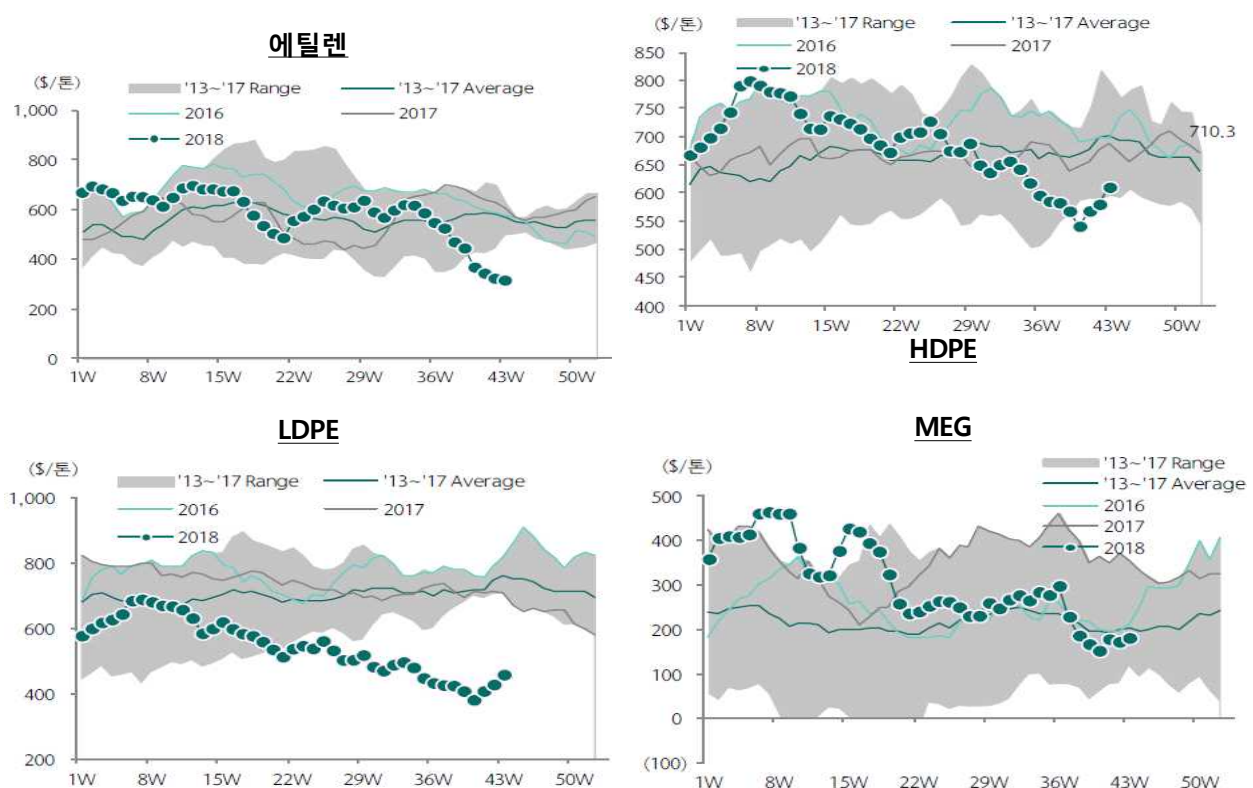
- 미국의 對이란 제재 부활에 따른 이란 원유 공급 감소,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에 따른 생산량 급감 등으로 2018년 들어 유가 급등
 - 2018년 8월 기준 이란 원유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7.7% 감소한 350만 b/d 수준이며, 11월 대이란 제재 발효 이후 2012년 제재 당시 생산량인 250만 b/d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
 -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 외화 부족 등 경제위기로 원유생산량* 급감
 - * 2015년 9월 238만 b/d → 2018년 8월 133만 b/d
 - 주요 산유국 원유공급 차질 우려 확대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며 두바이유는 2018년 10월 4일 \$84.44/bbl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
 - 2017년 두바이유 기준 평균유가는 \$53.19/bbl이었으나 2018년 1월~10월말까지 평균유가는 \$71.08/bbl로 전년대비 약 34% 급등
- 2018년 10월 초 이후 공급차질 불안감 해소 등으로 유가 상승세 진정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석유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 주요국 원유생산량 증가 등으로 유가 하락하여 11월 5일 두바이유 \$71.2/bbl 기록
 - 2018년 11월 5일, 이란 제재가 발효되었으나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석유수입 금지 예외 인정으로 이란발 공급차질 우려가 약화되며 유가급등 가능성은 낮아짐
- 미국 원유공급 증가세 지속,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수요 증가세 둔화로 당분간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지속 중



유가상승에 따른 납사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9월 이후 에틸렌 계열 제품 마진 급감

- 최근 에틸렌 마진 급감은 3분기 유가급등과 제품가격 하락에 기인한 현상으로 5년래 최저치 수준의 마진 기록
- 2018년 유가상승으로 납사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NCC 원가경쟁력 약화*
 - * 동북아 NCC설비의 에틸렌 Cash Cost: (2015년) \$510/톤 → (2018.9월) \$880/톤
- 미국산 PE 제품 유입 및 시황 부진으로 PE 설비 가동률이 낮아져 8월말 이후 동북아 지역 에틸렌 현물 가격 급락
- 10월 초 이후의 유가 하향 안정세와 10월 중순 이후 중국 재고비축 수요, 한국 NCC 정기보수 등에 따른 에틸렌 가격 반등이 예상되어 점차적인 마진 회복 예상
- 다만 향후 중동, 미국 등 수출물량 확대 등으로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전망

[그림 3] 에틸렌 계열 제품 마진 추이



주: 회색범위는 2013~2017년간 해당 주 최고/최저 제품 마진

자료: Platts, 하나금융투자 재인용



이슈 ③: 미·중 무역분쟁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양국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 석유화학제품 다수 포함

- 지난 7월 6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미국과 중국이 상호 5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간 무역분쟁 본격화
- 미국이 중국산 플라스틱과 일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중국 역시 미국산 석유화학제품 PE, PP, 프로판 등에 25% 관세부과(8월 23일 발효)
- 미국은 9월 중순 2,000억 달러 상당의 對중국 3차 관세품목(5,745개)을 발표하고 9월 24일부터 추가관세 10% 부과, 2019년부터 추가관세를 25%로 상향 조정 예정
- 3차 추가관세 품목에 화학제품 1,319개가 포함되는 등 석유화학제품 영향 확대 전망
- 미국의 3차 관세품목 발표에 대응하여 중국이 600억 달러 수입품에 5~25% 차등적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들어가고, 이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2,670억 달러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양국간 무역갈등 심화
- 11월 1일 양국 정상외의 우호적인 통화로 무역분쟁 해소 기대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집권했으나 트럼프의 對중국 정책에 대해 민주당도 대부분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11월말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

[표 3] 미중 무역 분쟁 일지

단계(발효일)	미국		중국	
1차 (18.7.6)	340억 달러	818개 품목	340억 달러	545개 품목
	기계, 선박·부품, 통신장비, 철도장비 등 25% 관세 부과		대두, 옥수수, 밀, 소고기, 돼지고기, 위스키, 자동차 등	
2차 (18.8.23)	160억 달러	279개 품목	160억 달러	333개 품목
	반도체·장비,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자동차, 의료장비, 석탄·석유 등 에너지, 화학제품 등 제품에 25% 관세 부과	
3차 (18.9.24)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	600억 달러	5,207개 품목
	24일 10% 관세 부과 시작, 2019년 1월 1일 부터 25% 관세 부과 예정		항공기, 액화천연가스, 농산물, 전자기계 등 미국산 수입품에 5~25% 차등적 관세 부과	
추가 관세 예상	2,67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준비 중			
2017년 수입액 중 추가 관세물품 수입액 비중	2,500억 달러/5,050억 달러 = 50%		1,100억 달러/1,300억 달러 =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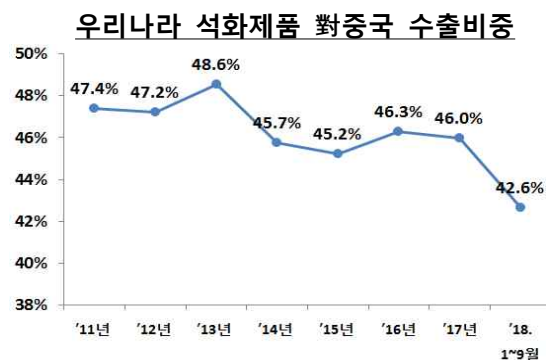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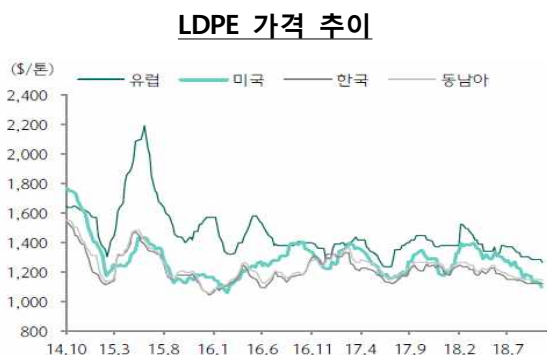
자료: USTR(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상무부, 블룸버그 등 보도자료 정리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영향은 제한적이나, 무역분쟁 장기화 시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감소 우려

- 미국의 중국산 플라스틱 수입 규제에 따라 PE, PP 등 합성수지를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 타격이 우려되나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중 최종 귀착지가 미국인 수출 비중이 5% 수준으로 낮아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한국의 對중국 석유화학수출액(2017년)은 약 205억 달러이며, 중국의 미국산 제품 제재로 중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경합하는 한국제품 수출이 증가하는 반사효과 기대 가능
- * 주요 석유화학제품 별 중국 전체 수입 중 미국수입 비중: HDPE 4.6%, PP 3.4%, EG 2.0% 등
- 그러나 무역분쟁 장기화 시 미국 공급과잉 제품의 중국 외 아시아 시장 유입 확대, 글로벌 전방산업 수요 둔화 등으로 시황 악화 불가피
-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최근 미국산 제품의 중국 외 아시아 시장 유입이 증가하며 LDPE 등 제품 가격 하락세
- 전방산업(자동차,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 등) 제재에 따른 관련 석유화학제품 수요 감소 영향도 점차 확산될 전망
- 우리나라 석유화학부문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수요둔화 시 對중국 수출비중이 더욱 감소할 우려
- 2018년 들어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예년 45~46% 수준 대비 3~4%p 감소한 43% 기록

[그림 4] 최근 LDPE 가격 및 우리나라 석화제품의 중국 수출비중 추이



자료: 하나금융투자,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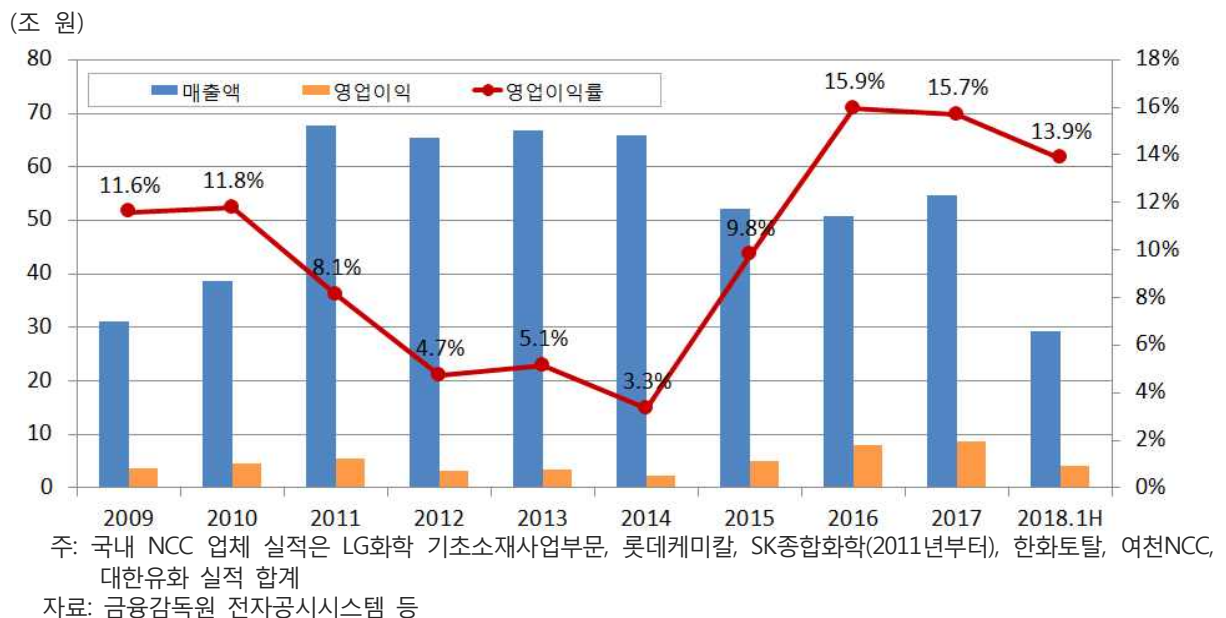


2.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

2018년 상반기, 국내 NCC 업체 실적은 양호한 수준 유지

- 2018년 상반기 국내 NCC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13.9%로 전년 15.7%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대비 여전히 양호한 수준 기록
- 유가상승에 따른 원재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8년 상반기 국내 NCC 업체들의 양호한 실적은 ■ 견조한 수요증가에 따른 시황 호조, ■ 미국 대규모 ECC 증설에 따른 에틸렌 공급 과잉 불구 인프라 부족으로 동북아 지역으로의 에틸렌 수출 제한, ■ 중국 석탄기반 에틸렌 설비 가동률 하락과 2010년대 중반 NCC 증설 투자 부진 영향에 따른 공급 타이트 등에 기인

[그림 5] 국내 NCC 업체 실적 추이



- 2018년 국내 석유화학 부문 수출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에 따른 신규(Virgin) 합성수지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액 증가
- 2018년 1~9월 석유화학부문 수출액은 3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2.4% 상승



- 2018년 상반기 기준 유가가 전년도 대비 33% 상승, 이에 따라 제품수출단가도 전년대비 13% 상승하며 수출증가 견인
 - 두바이 유가(\$/bbl): (2017 1H) 51.34 → (2018 1H) 68.37 (33.2%↑)
 - 제품 수출단가(\$/톤): (2017 1H) 1,202 → (2018 1H) 1,354 (12.6%↑)
- 품목별로는 아시아 역내 수급이 타이트한 합성수지 중심으로 수출증가
 - (에틸렌) HDPE, EG 등 국내 에틸렌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을 제고로 에틸렌 수출여력 감소, 하반기에도 정기보수 등으로 물량감소 전망
 - (합성수지) LLDPE, PVC는 정기보수, 가동을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증설된 LDPE, PP, ABS가 합성수지 수출 증가 견인
 - (합성원료) EG가 중국 폴리에스터 가동을 상승에 따른 수요 확대로 합성원료 수출 증가 주도
 - (합성고무) 중국 자급률 상승, 타이어 생산가동 부진 등으로 수출감소
- 하반기 수출은 NCC 및 PE 등 다운스트림 설비 정기보수 일정에 따른 생산 감소 영향으로 수출물량 감소가 예상되나 전년동기 대비 높은 수출단가 영향으로 수출액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표 4]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 수출 증감률 추이

단위: %

품목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품목 비중* (18년 1~9월)	품목별 중국 의존도 (18년 1~9월)	
												수출액	물량
기초유분	수출액	52.0	17.6	-4.7	-2.3	-37.1	-8.5	35.0	9.6	13.3	59.0	56.5	
	수출량	20.5	15.1	-4.9	2.3	3.3	-2.8	10.7	-4.6	19.0			
중간원료	수출액	46.6	7.4	31.5	5.1	-15.5	1.6	22.1	10.4	17.0	80.8	81.7	
	수출량	11.7	6.7	23.7	22.4	25.9	8.3	10.2	-5.7	22.9			
다운 스트림	합성 수지	수출액	14.7	0.0	9.3	1.5	-15.1	-5.1	16.9	14.6	46.4	33.2	32.8
		수출량	-1.3	7.0	7.6	0.2	1.5	3.0	4.9	2.4	35.4		
	합섬 원료	수출액	30.0	-18.7	-5.5	-17.4	-34.6	-23.1	26.4	11.4	4.9	35.9	45.8
		수출량	-1.2	-6.8	-5.4	-6.3	-9.3	-18.3	10.5	1.0	7.2		
	합성 고무	수출액	66.7	-7.7	-20.6	-6.0	-19.8	-3.6	38.7	0.3	6.2	18.4	11.9
		수출량	11.5	11.4	10.2	3.4	3.5	1.0	7.5	-8.7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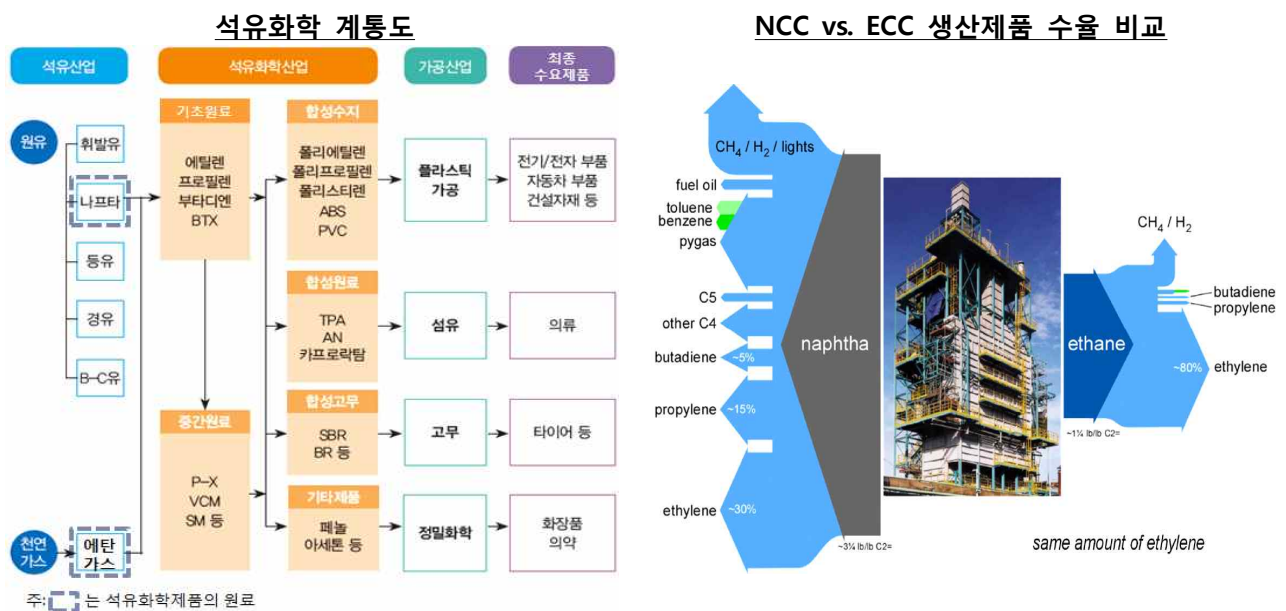
* 전체 석유화학수출에서 품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무역협회



에틸렌 계열의 공급경쟁 심화, 비에틸렌 계열은 공급 타이트 전망

- 에틸렌 설비 중 NCC 설비는 에틸렌, 프로필렌,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다양한 유분이 생산되는 반면 ECC 설비는 대부분 에틸렌이 생산되어 PE, MEG, PVC 등 에틸렌 계열의 유도품만 생산 가능

[그림 6] 석유화학 계통도 및 원료별 생산제품 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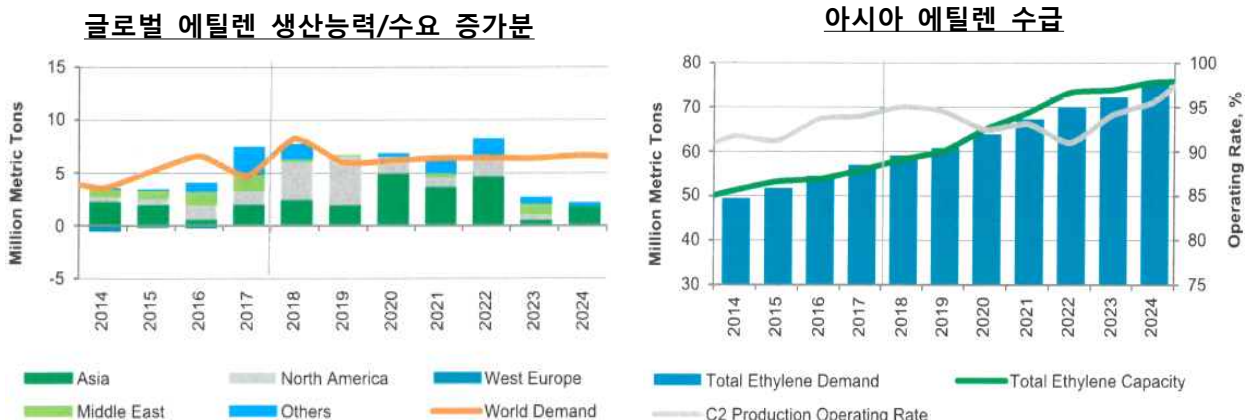


주: [] 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Dow, IHS Markit 재인용

- 향후 5년간 계획된 글로벌 에틸렌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이 북미 ECC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19년 이후 3~4년간 에틸렌 계열 제품의 공급경쟁 심화 전망

[그림 7] 에틸렌 수급 추이 및 전망



자료: IHS(2018.10)



- 중장기적으로 국내 정유사들도 대규모 NCC 증설 등을 계획 중으로 공급경쟁에 가세할 전망
-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화학사업 진출로 2021년 이후 대규모 NCC 설비* 완공 예정
- * 2021년 현대케미칼(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JV) 75만 톤, 2022년 GS칼텍스 70만 톤, 2023년 S-Oil 150만 톤 NCC 증설 등
- 정유사들은 수직계열화로 기존 NCC 업체 대비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업체간 공급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

[그림 8]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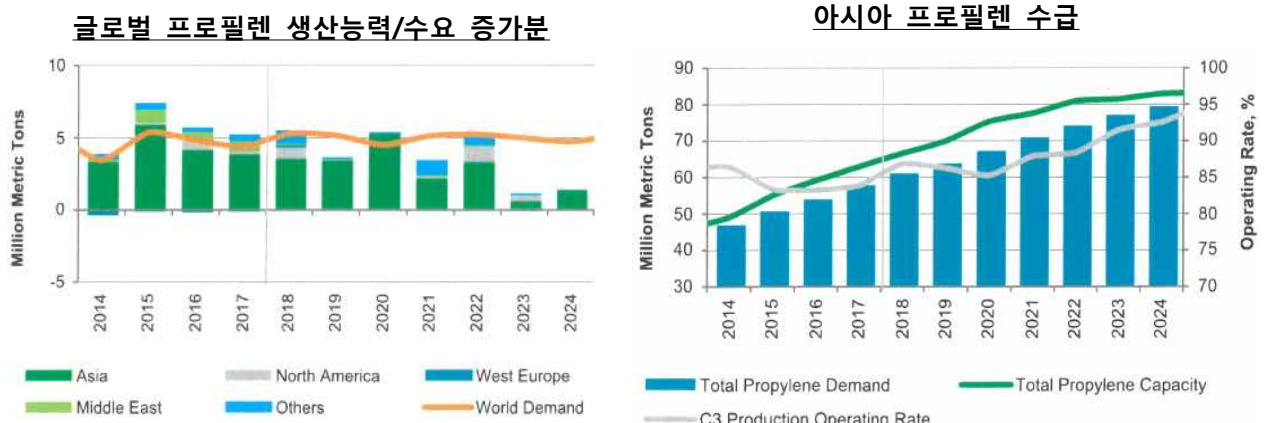


자료: 하이투자증권



- 글로벌 프로필렌 설비 투자는 주로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 이후 글로벌 공급이 타이트해질 전망
- 프로필렌은 2020년대 중반까지 글로벌 공급부족으로 설비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상승하여, 에틸렌 계열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 기대
- 우리나라는 프로필렌 생산능력이 2017년 852만 톤에서 2022년 970만 톤으로 확대되는 것을 비롯하여, PP(폴리프로필렌), PO(프로필렌 옥사이드) 등 다운스트림 설비 신증설 계획

[그림 9] 프로필렌 수급 추이 및 전망



자료: IHS(2018.10)

향후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 경쟁력 약화, 미·중 무역갈등 고조에 따른 수요 둔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필요

- 지난 몇 년간 저유가, 견조한 수요 및 역내 공급부족 등으로 국내 NCC 업체의 호황기 지속
- 그러나 미국발 ECC 증설확대 및 국내 공급과잉 심화,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경쟁력 약화와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등이 가시화될 경우 실적악화 불가피
- 중장기적으로 원료 다변화 및 고부가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전환할 필요